

# “이주노동자도 같은 꿈을 꾸는 사람...따뜻한 시선 필요”

## 첫 다큐영화로 광주서 관객과 대화...재중동포 장 룰 감독

지난 18일 재중동포인 장룰(Zhang Lu·51) 영화 감독이 관객과 대화를 위해 광주극장을 찾았다. 그는 '몽경', '경계', '이리' 등을 발표할 때마다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중국 연변출신으로 지난 2000년 영화 '11살'로 데뷔한 장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상위원회상(2004), 페사국제영화제 뉴시네마부문 대상(2005),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2010)을 수상했다.

장 감독의 아홉 번째 작품이자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인 '몽경'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9개국 온 14명 이방인의 '꿈'을 담았다. 영화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이슬람사원, 목재공장 등에서 일하는 그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한국에서 꿈, 가장 기억나는 꿈은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

하는 장면부터 아버지가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는 모습, 어딘가를 향해 걷다가 강물이 불어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돼 발을 동동 굴렀다는 이야기까지 주인공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영화는 줄곧 흐릿한 날씨가 이어지고, 주인공들은 비릿한 삶을 이겨내느라 연신 버거워한다. 왜 꿈을 물었느냐는 질문에 감독이 답했다.

“꿈은 누구나 평등하게 꿀 수 있지 않아요. 눈을 뜨면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분명해요. 그렇지만 꿈 속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세상을 그릴 수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14명이 꿈 속에서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는지 들으면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감독은 꿈과 일상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실제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이방인들의 꿈을 들으며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작

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영화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안개 자욱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꿈을 꾸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스산한 풍경은 낯선 나라를 찾은 이방인들의 불안함을 시나브로 드러낸다.

50여 명의 관객과 난로 하나를 마주보며 앉은 장 감독은 광주극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과거에는 광주극장과 닮은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대규모 복합상업권이 늘어나면서 옛스러움을 간직한 극장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죠. 제 영화가 스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광주극장에서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극장과 잘 어울릴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객은 문화를 전공한 그가 낯익어 영화감독이 된 ‘특별한 계기’를 물었다. 장 감독은 살포시 웃으며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문화는 글로 감정을 다루

는데 자신이 영상과 소리에 더 예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영상과 소리에 예민하고 밝힌 장 감독이 만든 작품에는 영화음악이 없었다. ‘몽경’이 상영되는 96분 동안 영화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 교회에서 성가 부르는 소리, 거리악사의 바 이올린 소리를 제외하면 음악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생생한 현장의 ‘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는 지금까지 영화에서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고 현장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감독은 밝혔다.

영화 ‘몽경’을 통해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도전한 장 감독은 새로운 장르를 찍으며 많은 매력을 느꼈지만 그만큼 어렵다고 말했다. 당분간 다큐멘터리를 찍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그가 준비하는 새 영화는 ‘경주’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며 한국인 모두에게 친숙한 경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올해 안에 개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전남도 간부공무원 부인 모임 복지시설 위문



전남도 간부 공무원 부인들의 모임인 목련회(회장 최수복)는 설을 앞두고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아정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잇달아 방문, 위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광록기자 kroh@

## 광주안심교육포럼, 창립총회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인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주축이 된 광주안심교육포럼이 지난 18일 광주 CMB방송국 컨벤션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인사

- ◆법무부
  - ◇서기관(4급) 승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강성환
  - ◇서기관 진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주재관 귀일임부터) 이우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수남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승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주면식
- ◆산업은행
  - ◇지역본부장 ▲호남 지광남
  - ◇지점장 ▲목포 유병록 ▲여수 신동철

## 유상중 화성산업 회장, 모교 조대부고에 장학금 5천만원

# “후배들 미래로 가는 길 디딤돌 되었으면”

조대부고 총동창회는 최근 광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300여 명 동문과 ‘신년하례회와 장학회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15회 동문인 유상중(주)화성산업 회장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을 전달한 유 동문은 이날까지 장학금으로 총 1억 원을 전달했으며, 장학금 이외에도 모교 발전기금 2억5000만원을 기탁했다.

유 회장은 “조대부고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좋은 선배를 만나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며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조대부고 장학회의 기금 모금액은

10억 원에 이르며 향후 10년 내 3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금된 장학금은 지난 2005년부터 9년간 68명(1억 2700만 원)에게 전달됐다.

김성중 총동창회장(전 보전복지부장관)은 “선 후배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몽치는 동문회’, ‘힘 있는 동문회’로 거듭나고 있다”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모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문들이 되자”고 밝혔다.



유상중(왼쪽)회장이 최근 열린 조대부고 총동창회 신년하례회 및 장학회의 밤 행사에서 김성중(오른쪽) 총동창회장에게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하고 있다.

## 매년 나주 어린이시절서 위안 잔치 SM美 성형외과 이상혁 원장

# “군복무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 이제 가족”

공중보건의 시절 맺었던 마을 어린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의사가 있다.

광주지 서무지구 SM美 성형외과 이상혁 원장은 지난 2008년 나주시 금천면 금천보건지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주변 마을의 어린이와 노인시설을 잊지 않고 매년 찾고 있다.

이상혁 원장은 복무를 마치고 개업을 한 뒤, 지난 2000년부터 매해 금천면 어린이시절인 금성원을 찾아 작은 행사를 마련하고 잔치를 하는 등 소중한 추억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에는 이곳 어린이와 직원들을 광주로 초청해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Family Day’ 행사를 가졌다. SM美 성형외과 직원 19명

은 19일 하루 동안 금성원 가족 72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먼저 외모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2명은 이상혁 원장이 쌍꺼풀 수술을 해줬다.(사진) 영화를 좋아하는 55명의 어린이는 영화관을 찾았으며, 16명은 병원 누나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탔다. 나이가 작은 어린이 12명은 키즈 카페에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들



모두 마친 뒤에 전원이 모여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도 가졌다. /채희중기자 chae@ /사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왕시엔민 주 광주 중총영사, 내일 새해 리셉션

왕시엔민(王憲民) 신임 주 광주 중국총영사는 21일 오후 6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취임식 및 2014년 새해 리셉션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북지역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왕 총영사는 대학 졸업 후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 주 유엔(UN)대표단 3등 서기관, 주 홍콩 특별행정구 특파원공서(特派員公署) 2등 서기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주 켈거리 부총영사로 근무해 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받은 사랑 나눔으로 갚습니다”

### 문근영 땅끝아동센터, 6년째 용돈 모아 기부



차비를 아껴 나눔을 실천하는 해남 땅끝마을 학생들의 선행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해남군 땅끝지역아동센터 소속 학생들이 차비 등 용돈을 아껴 모금한 동전 59만7340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다 쓴 껌통과 페트병으로 손수 저금통을 만들어 1년 동안 동전을 모았다. 아동센터의 전신인 땅끝공부방은 2006년 건물 매각 결정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가 영해마을 문근영씨의 3억원 기부로 땅끝지역아동센터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학생들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2008년부터 용돈과 차비 등을 아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센터 교사인 김혜원씨는 “언니, 오빠들이 손수 저금통을 만들어 열심히 동전을 모으는 모습을 본 저학년 아이들이 동전을 따라 넣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며 “아이들이 앞으로 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학측

- ▲노원평(안디교회 담임목사)·김귀숙씨 장남 성중(의사)군 박표진(광주대 교수·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심은숙(초등학교 교사)씨 3녀 고문(고교 교사)양=25일(토) 낮 12시 경기도 파주시 안디교회 2층 대예배실.
- ▲(사)전주씨매 대중음악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 이화월례회의(회장 이의준)=21일(화) 오후 7시 011-645-2284.
- ▲(사)전주씨매 대중음악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희희)=22일(수) 오전 11시 010-3605-2059.
- ▲진주강씨 광주전남 중회(회장 강원구) 운영위원회의 개최=24일(금) 오후 5시 30분 중회 회관 3층 사무실 062-228-3368.

### 충진회

- ▲2014년도 경주김씨광주 전남 중친회 정기총회=25일(토) 오전11시(복지법인)인애동산 회의실(남구 봉선2동 132) 062-672-9311, 010-5258-931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치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 ▲이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 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 알림

- 한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 부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 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 ▲장애이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

### 모집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원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
- ▲제기광주불교 인문학당=기간은 2월 5일~4월 30일(3개월·매주 수요일), 시간은 주간(오후 2시~4시)·야간(오후 7시~9시), 과과는 불자예절과 신행생활·예불문 및 천수경·사찰의 구조·불교의례. (사)광주불교교육원 062-228-9098.
- ▲함께 안아요! 함께 키워요! 가정 위탁!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

### 모집

- 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 ▲한국노후생애대학교 8기 학생모집 요강=교육과정은 생활영어·국선도 차매예방/풍수·명리학/음악양행·노후생애설계·노인상담심리학, 대상은 노후준비 희망자·열정 있는 중장년·건강한 은퇴자(정년 35명·선착순)이며 고졸이상 50~70대 중반, 제출서류 및 입학절차는 입학원서 및 면접, 원서접수는 2월 한 달, 8월 한 달, 합격자 발표는 문자로 개별통지, 장소는 광주 동구 대의동에울길31-11(동부경찰서 옆 신세계영어학원 5층) 062-223-1357, 010-2646-5023.
-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만화기초수업 초등학생부·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 모집(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썬신허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 ▲살레시안 가족상담단원 모집(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 부음

- ▲정장찬씨 별세 재실·재만·속회·속자서 부친상=발인 2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 ▲최초순씨 별세 임종만(동아일보)·종업(한국전력)·종호(군포시청)·종순·종남·말자·종덕·종례씨 모친상 홍성욱·최태웅(서울지검)·허준명씨 빙모상=발인 21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叩**

<b>401호 故조무원 님(남/79세)</b> 子/子婦: 조순민/나연화 女/婿: 조영미/이경희, 문희/국순기, 문자/여건민 경이/김대현 未亡人: 김필자 호 실: 401호    발 인: 1월 20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983	<b>402호 故박희상 님(남/80세)</b> 子: 박국선 女/婿: 박복순, 양순, 양숙/이광원, 정옥/이재창 시현, 은희/조영선 호 실: 402호    발 인: 1월 21일 장 지: 망월묘역    연락처: 227-4314
<b>101호 故이금진 님(여/79세)</b> 子/子婦: 정선민/이금례, 선한 女: 정선정 호 실: 101호    발 인: 1월 2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b>102호 故양영자 님(여/82세)</b> 子/子婦: 정영찬/임이은, 영민/김선희 女/婿: 정숙미/기노철 호 실: 102호    발 인: 1월 21일 장 지: 동백선영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